



日, '8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' 발표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은 국가전략회의에서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 2% 달성을 위한 '일본 재생전략'을 발표함.

- 이날 발표된 재생전략은 환경, 의료, 농·수산업 등 세 분야에서 2020년까지 적어도 100조 엔 규모의 신규시장과 480만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함.
 - 환경 관련 산업에서는 신축 주택의 에너지 절약 기준 달성률을 2010년 42%에서 100%로 높이고,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자동차 판매율은 10%에서 50%로 제고할 계획임.
 - 의료·개호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과 의료기기 실용화 등으로 50조 엔 규모의 신규시장과 28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임.
 - 무역에서는 일본 무역에서 차지하는 경제연계협정(EPA)¹⁾ 비중을 2011년 18.6%에서 2015년 30%, 2020년 80%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.
 - 고용 측면에서는 20~34세 젊은 층의 취업률을 2009년 대비 2.4%p 상승한 77%로 끌어올리고 청년 실업자 수를 2003년 217만 명에서 124만 명으로 줄일 계획임.
- 이번 재생전략은 2010년 6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간 나오토(かんなおと) 전 총리의 '신성장 전략'²⁾을 확대한 것임.

■ 일본 정부는 이번 재생전략으로 고질적인 엔고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일본 경제를 성장세로 전환시키겠다는 취지 아래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임.

- 노다 요시히코(のだよしひこ) 총리는 정책분야별로 탄력적으로 예산 배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힘.

1) 상품의 관세인하,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으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임.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·정보·커뮤니케이션 기술·과학기술·인력개발·관광·에너지·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시킴.

2) 「신성장전략」은 7대 전략 분야(① 환경·에너지대국, ② 건강대국, ③ 아시아경제, ④ 관광·지역, ⑤ 과학·기술·정보통신, ⑥ 고용·인재, ⑦ 금융)에서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경제성장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, 지난 2년 간 신성장 전략이 추진한 정책은 400개 가운데 10%에도 미치지 못함.

- 그러나 과거 전략 및 계획에서와 같이 보기 좋은 슬로건과 수치적 목표만이 내세워져 있고 막대한 부채를 지닌 일본이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임.
- 또한 소비세 증세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입지가 불안해진 노다 요시히코(のだよしひこ) 총리 정부가 새 성장전략을 밀고 나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임.

(J-CAST 外, 7/31)